

Merry
Christmas

효원인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소망트리

2018. 12. 3.(월) ~ 2019. 1. 11.(금)

❄️ 여러분의 소원을 달아주세요 ❄️

2019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소망이나 도서관에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장소 : 각 도서관 1층 로비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참여대상 : 교내구성원 및 도서관 출입 일반인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SF Maker Space
- 08 **특집 기사**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 리뷰
- 10 **사서추천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 12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4 **아름다운 인터뷰**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자 인터뷰
- 16 **여기 issue**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도서 및 영화 소개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알아두면 쓸데 많은 도서관 통계
- 20 **#발견 #이곳** 부산 지역 서점 탐방 문우당, 남포문고, 영광도서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공모전** 2018 도서관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8. 12. 20
 편집 정재훈, 전태경, 최덕수, 강승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onbin9@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SF Maker Space

2018년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키워드는 “S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을 비롯하여, SF를 주제로 자료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중 SF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내 SF Maker Space 공간을 신설하였다. 과학 및 SF 자료를 집약하여 수집·전시하고 SF와 관련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SF Maker Space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700종의 다양한 과학 및 SF 관련 자료

SF 분야 대표 작가 3인(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클라크,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자료를 비롯하여, SF를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SF 관련 자료를 한 곳에 집약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상상력 및 아이디어 발굴 기회를 제공한다.



SF적 상상을 돕기 위한 편안하고 창의적인 공간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다양한 SF 자료와 함께 SF적 상상을 꿈꿀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며, 향후 SF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필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SF Maker Space의 향후 계획

SF Maker Space는 상상력의 총아인 SF 문화 콘텐츠 작품을 함께 나누며 지역 내 과학독서 문화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작가와의 만남, SF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모임의 공간으로서 지역 내 SF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SF Maker Space 관련 문의 사항 또는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팀 (051-510-1813)으로 연락하면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 대회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발굴·육성할 목적으로 부산대와 DRB(부산 지역 기업)가 공동 개최한 SF 공모전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만 27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약 석 달간 진행하였으며, 지난 2018년 11월 10일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의 본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문학(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 등 3개 부문에서 총 52편의 작품이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쳤으며, 성인 3편, 청소년 3편 등 최종 6편의 작품이 이날 본선에 진출하였다. 수상자에게는 부산대학교 총장상과 더불어 성인부문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청소년 부문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김진재 SF 어워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공모분야: 문학, 그림, 영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문학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2명 (30만원)
그림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2명 (30만원)
영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2명 (30만원)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sfaward.pusan.ac.kr> 또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재 SF 어워드 성인부문 수상자



대상

김요한 (고려대학교)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제목 | 점근선(Asymtote)

죽은 아내 "지혜"를 그리워하는 "수", 그는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 그녀의 기억, 그녀의 이름 등을 AI 에게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렇게 지혜와 가까워진 AI는 과연 지혜와 같은 사람일까?



최우수상

강태영, 김정훈, 지가람 (부산대학교)

응모분야 | 문학 - 시나리오시놉시스
작품제목 | 인형사의 마지막 변론

인간과 상이한 판결을 내린 인공지능 재판관과, 그런 인공지능의 오작동 여부를 조사하는 시검 사관간의 대화를 통하여,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판결을 내리는 인공지능과, 법리에 파묻혀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인간 재판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우수상

김혜리 (부산대학교)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제목 | 추락을 위한 비상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로봇에게 잃고 난 후, 로봇과 인공지능을 제거하기 위해 살아 간다.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희미해진 미래에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이들 수상작은 김진재 SF 어워드 홈페이지(<http://kjisfaward.pusan.ac.kr>) 및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내 SF Maker Space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상작들을 모아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진재 SF 어워드 청소년부문 수상자



대상

이진형, 홍성현, 손민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응모분야 | 영상 - 단편영화
작품제목 | 新사씨남정기

고전소설 "사씨남정기"를 각색하여 "인공지능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갈등을 그렸다.



최우수상

김소현 (부산해화학여자중학교)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제목 | 나에게로 온 두 번째 선물

15-20년 뒤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마을, 그곳에 발을 디딘 서울에서 온 예쁜 여자아이는 못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보인 시골 소년 "하나"가 있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을 극복하는 소년의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로봇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수상

이은용 (대전관저중학교)

응모분야 | 문학 - 단편소설
작품제목 | 너의 운명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주인공은 이별을 통보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너도 똑같아"라는 말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이었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상상의 세계를 만끽한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를 뒤로하며...

"김진재 SF 어워드"는 이제 막 첫 삽을 떴다.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SF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었으며, "김진재 SF 어워드"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개최될 "김진재 SF 어워드"는 어떤 모습일까?

"김진재 SF 어워드"는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과 지역기업인 (주)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와 공동협력으로 과학 및 SF 창작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김진재 SF 공모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과학독서 아카데미' 개설·운영 등 지역의 과학 인재 조기 발굴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김진재 SF 어워드"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051-510-1810)으로 연락하면 된다.





효원인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도서관에서는 매주 1권씩 “사서 추천 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추천한 도서 중 리뷰수가 많은 아래의 도서 4권을 통해 책으로 더하는 감동을 효원인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비 존슨 / 박미영 옮김 / 청림Life / 2014 / 224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620.286 J66z한] 추천사서 | 과학기술팀 김경이

집을 정리하고 유지하는 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동안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나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으니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위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삶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환경문제를 위해 개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일던 차에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책을 만나게 되었다.

저자는 집안에 가득 찬 물건을 정리하고 유지하는 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후 일상을 간소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쓰레기 줄이기는 먼저 생활의 간소함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물건들의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물건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간소함의 실천에서 나아가 저자가 알려주는 쓰레기를 없애는 다섯 가지 방법과 쓰레기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다른 생활문화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며,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충분히 용기를 준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찬호 / 블랙피쉬 / 2018 / 287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00.2 오811호] 추천사서 | 자료조직팀 전태경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와 타인을 위하여...

“우리들은 낮 뜨거워질 순간을 잘 모른다. 남은 괜찮지 않은데 당당하다.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뜨거운 심장은 온데 간데없다. 자신의 발버둥에 아파하는 누구의 허우적거림에는 냉정하다. 쓸데없는 열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무례한 차가움으로 주변을 내친다. 서로가 칼을 겨루고 찌르니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만 늘어간다.”-프롤로그 중에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진격의 대학교.,”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의 저자 오찬호가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에서 괜찮다 위안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천적 대안을 담은 실천 인문학을 이야기 한다.

혐오와 폭력, 차별과 꿈수가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차별에 둔감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한다. 여성혐오, 노키즈존, 맘충, 사회적 약자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등 현재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상식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간단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참으며 타인에게 또 차별과 혐오를 되돌려주는 사내대로 생각하는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읽고 나의 일상부터 돌아보기를 바란다.



리더의 비유

한근태 / 울림 / 2018 / 256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658.4092 한18ㄹA] 추천사서 | 문학예술팀 윤현희

비유는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내 것이 되고 쓰는 만큼 깊고 넓어진다

리더라면 비유를 통해 때론 재미있게 때론 쉽게 비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유는 힘이 세다. 딱 막힌 생각을 뚫어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또한 공감과 환호를 불러일으켜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책 <리더의 비유>는 여러 사례를 통해 비유의 잠재력을 알려 준다. 강력한 비유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리더의 비유>는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의 예를 많이 보여준다. 이 책은 대중을 사로잡는 비유 / 삶을 깨우치는 비유 / 관계가 좋아지는 비유 / 리서십이 강해지는 비유 / 비즈니스를 살리는 비유 / 설명이 똑부러지는 비유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중 이런 내용이 나온다. <뉴욕타임스>가 경영 위기를 맞았을 때 편집국장인 에이브러햄 로젠탈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수프에 물을 더 많이 넣는 것입니다. 비용은 줄겠지만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겠지요. 또 하나는 토마토를 더 많이 넣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토마토를 더 넣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이 짧은 비유 하나로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고, 이후 <뉴욕 타임스>는 회생에 성공한다. 이와 같이 비유는 단순하고 강하고 아름답다. 짧은 문구로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표현한다. 적절한 비유는 어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말보다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다.



고양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8 / 482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43.914 W484d한]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강승일

고양이의 눈과 입을 통해 인간의 역사, 다양한 지식, 무한한 상상력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인기가 많은 프랑스 작가가 있다.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인데 그의 소설들은 하나같이 상상력이 번쩍이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그런 그의 가장 최신 소설이 바로 “고양이”이다.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주인공은 고양이이다. 그는 이 책에서 고양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사회를 고양이의 습성에 맞춰 흥미롭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고양이의 삶을 살아온 “바스테트”가 인간 세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고양이를 만나면서, 고양이의 눈과 입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다양한 지식을 무한한 상상력과 더불어 재미있게 들려준다. 이 책의 장점은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2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책의 페이지 수가 작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지식을 탐하는 고양이 “바스테트”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스테트”와 반대되는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펠릭스”라는 고양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지식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사서추천도서” 안내 |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매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서추천도서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추천 내용이 궁금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탁 국어교육과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나의 서재의 책 혹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이 역사라는 큰물 지는 강물에 떠밀려 모래섬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도 나의 서재는 쓰레기더미 창고라 할 수 있다.

학교에 있는 나의 서재(연구실)는 쓰레기더미 창고 같다. 매년 해오던 정리정돈도 언제부터인가 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창고와 진짜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집에 마련한 서재도 더는 채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한테는 미안한 마음만 가지지만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비워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더는 어떤 책도 서재에 들어놓지 않으리라 거듭 다짐해 보는데도 다짐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나의 서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앓을 자리 하나 내어주지 못하고 시각과 후각에 불쾌감만 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나는 우리말글이 너무 어려워 대학을 진학했다. 수학이나 과학에 비하면 국어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다. 신문연재소설은 잘 읽히는 데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은 읽히지 않았고 선생님이나 참고서의 해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어국문학과로 진로를 정한 데에는 내가 겪던 어려움이 그곳에서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물론 그런 기대는 한 학기도 가기 전에 산산이 부서졌다. 상당수 교수가 어려움을 겪게 했던 교과서나 불친절했던 참고서를 제작한 분이었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스스로 해결해 보리라 마음먹고 도서관을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높은 장벽을 만났다. 분명 우리 말글인 듯한데 전혀 낯설고 이런저런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로 채워진 책들이 너무 많았다. 지금처럼 위키피디아 같은 친절한 도우미가 있었다면 사정은 좀 달랐을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너무나 높게 보이던 장벽이 다른 학생에게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은 듯했다.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대학 시절의 가장 큰 목표였다. 때문에 나의 서재에는 지금도 사전류의 책이 많다. 대학 시절 도서

관에 비치된 사전류의 책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곁에 두고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브리태니커 사전만큼은 도서관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본 범주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이런저런 책을 사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읽히지 않는 책도 출판되고 있었지만, 우리 말글에 가까운 번역서들이 하나둘 출판되기 시작했다. 그런 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서 읽었다. 그런 책들이 지금 나의 서재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의 내 사고와 판단과 행동은 그때 읽은 책들에 의해 좌우되었지 않나 싶다.

모든 책이 다 읽기 어려웠지만, 특히 어려운 것이 문학이론 서적이었다. 논의를 펼치는데 활용되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을 배가했다. 어떤 이론이든 그 나름의 맥락이 있고, 작품 또한 그 나름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두 맥락을 모두 알기란 불능에 가까웠다. 이런저런 번역이나 해설류의 책들로서 문예이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시기 서구의 문예이론 대부분이 기본 범주조차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채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그나마 위안을 주었다. 당시 국문학 분야의 이론 또한 그런 이론을 구성하는 용어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옛사람이 쓰던 한자나 한자어로 채워져 있었다. 이론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대학 진학을 결심했는데……, 결국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길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고문헌 자료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지금 나의 서재는 그런 자료를 복사하거나 영인해서 묶은 책들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문헌을 읽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와 노래의 맥락을 재구하는 작업이다. 앞의 일을 해나가는

데 디지털 시대는 여러모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서는 물론 유가의 경전들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고문헌들을 검색 가능한 전자판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시대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그런 책들이 나의 서재를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인 작업도 중요한 만큼 서재를 채우고 있는 책들의 필요성마저 없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틈나는 대로 이런 문헌들을 하나 하나 읽고 있다. 이 일을 하며 갖고 있는 최근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중주(宗周)'의 정체이다. 5백년 이상 사람을 옥죄었던 '중주' 사상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과거 지식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글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이즈음 뇌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식인에게 '중주'는 '신유학'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이해한 '중주'의 실질적인 내용은 물론 '중주'에 대한 지식인의 태도도 하나같이 같았던 듯하다.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우리 역사서는 물론 중국 역사서와 유가의 경전을 읽는 일도 그동안 꾸준히 논문을 통해 보여왔던 옛 시와 노래의 맥락을 재구하는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간에 교과서를 통해 만나야 하는 노래 가운데에는 그런 문헌에 담긴 역사와 사상의 실상을 알아야 맥락을 이해하고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가령, 정성가, 청산별곡, 한림별곡 등은 우리의 문헌은 물론 중국의 문헌에 담긴 역사와 사상에 대한 쫓겨난 이해 없이는 읽히지 않는 글이다. 또, 그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자면 본디 있던 자리에 가져다 두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맥락 재구는 마치 큰물에 떠밀려 허류 지역에 쌓인 쓰레기 하나하나를 본디 있던 자리에 가져다 두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서재의 책 혹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이 역사라는 큰물 지는 강물에 떠밀려 모래섬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도 나의 서재는 쓰레기더미 창고라 할 수 있다.

쓰레기더미에서 진귀한 보물을 찾는 일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그런 취미를 나는 골동 취미라고 부른다. 나는 골동 취미를 가진 사람처럼 보물인 것과 아닌 것을 감식하는 혜안도 없다. 더미를 이룬 쓰레기 하나하나를 본디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는 데만 관심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던 물건이었던 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쓰레기들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 특히 그것을 해석하여 재구성한 역사, 그래서 교육의 장에서 학습된 역사는 지금 우리 몸속에 자리하며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미래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서재에 쌓여 있는 쓰레기 하나하나를 본디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아 보는 작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긴요한, 내 나름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물건을 본디 있던 자리에 가져다 두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쓰레기 하나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 보는 데에도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한 적도 있다. 하루 중 쓰레기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도……, 아마 나의 서재는 정년이 될 때까지도 쓰레기 창고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쓰레기더미에 갇혀 살면서 나는 어떤 말글이라도 맥락을 알아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맥락을 공유해야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또한, 어릴 적 학습을 통해 내 안에 형성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나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우쳐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더미 창고가 나에게 안식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서재에 있는 어떤 책도 누군가에게 읽어 보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아직 나 자신이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는 다 읽었노라 쾌재를 부른 책도 없지 않고, 발견과 알아감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던 책도 적지 않다. 읽는 재미에 빠져 밤새는 줄도 모르게 했던 책도 나의 서재 한 칸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노래 한 편도 온전하게 읽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노라는 말은 거짓일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의 서재를 방문하는 학생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곤혹스럽다. “선생님, 여기 있는 책 다 읽어 보셨어요?” “여기 꽂힌 책 중에 선생님께서 특히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은 어느 것인가요?” 웃고 만다. 읽지 못할 책이면 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도서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알고 싶은 욕망이 앞선 탓에 나는 합리적인 책 소비자가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의 서재는 쓰레기더미 창고가 되었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야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김진재 SF 어워드

2018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자를 만나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향토기업 DRB와 협력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과학 및 SF 창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를 지난 8월부터 약 석 달간 진행하였다. 이번 44호에서는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의 대상 수상자(성인 부문, 청소년 부문)와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성인부문 대상 김요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마지막 학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졸업준비생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모든 졸업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 파이팅입니다.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언제나처럼 등단을 준비하며 소설을 습작하고 있습니다. 검사검사 소설 공모전들도 찾고 있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졸업 작품도 준비해야 했고, 이력서의 빈칸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 공모전을 찾아보던 중, “김진재 SF 어워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몸을 뚫고 지나갔죠. 지난 몇 년간 SF소설들을 자주 읽어오면서 스스로 조금씩 SF소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상자분이 쓰신 작품에 대해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시뮬레이션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AI들은 자신들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치 매트릭스 속 빨간 약을 먹기 전의 “네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AI “101”이라는 녀석이 이 빨간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로인해 출동한 운영자인 “수”가 “101”과 얽히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AI를 없애기 위한 비밀단체의 음모와 우주를 누비는 두 사람의 파란만장한 모험! 자~! 기대하시라!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회의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의 바로 옆에는, 시리, 빅스비, 클로바, 누구 같은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전 아직 개인 기상캐스터로밖에 쓰지 못하고 있지만요. “클로바~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말이에요. AI와 인간의 관계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힐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내 직업을 차지할 수도, 직업동료가 될 수도, 어쩌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감정을 서로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나이 제한에 대해 말할 수 있겠네요. 제한이 있다는 건 일정 부분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젊은 층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보여서 좋았어요. 어떻게 본다면 SF적 세계에 직접 부딪쳐야 하는 입장인니까요.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터스텔라 같이 현실의 과학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터미네이터처럼 현실의 과학과 좀 벗어나더라도 좋은 SF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F의 장르가 가지는 강점은 얼마나 현실의 과학과 똑같은가가 아니라, 과학에 기대 현실 같은 가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SF가 보여주는 그럴듯한 가상 속에서 미래의 문제를 미리 만나볼 수도, 또는 미래의 사회를 엿볼 수도 있겠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가진 과학이론과 틀리더라도, 과학에 맞춰져 있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심사 기준에 있는 ‘과학적 사고’와 ‘완벽성’이라는 항목에 있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소설을 쓰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평소 SF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SF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고 하는 “스타크래프트”도,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아이언맨”도 SF작품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SF의 친숙도에 비해 창작물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SF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고증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하드SF도 SF지만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스페이스오페라도 SF인걸요. (물론 인정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설의 경우에 한정하자면,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SF소설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SF작가들도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영화계에서도 좋은 SF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던진 파장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는 SF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연코 아이작 아시모프의 장편소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차근차근 그려져 가는 미래의 이야기들은 정말 멋있거든요.

지금 봐도 세련된 상상력들이 읽을 때마다 저를 감동시켜요.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의 단편소설인 『최후의 질문』이나 『전설의 밤』도 좋아하지만요. 그의 라이벌 아서 클라크의 작품들 『별』이나 『유년기의 끝』 역시 저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나열해보고 나니 우리가 당연시하는 생각들을 한 방 먹여주는 작품들이네요. 제 취향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테드창의 소설이 영화화 되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덕분에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쉬워졌죠. 중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거든요. 첫 작품인 『바빌론의 탑』은 읽을 때마다 채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많은 작품들을 좋아해요. 두나씨들의 작품도 좋아하고 수많은 영화 및 게임들도 시나리오를 한 번씩 읽어보곤 하죠.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쓰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려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번듯하게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데도 설계도와는 다른 이상한 작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듯이 제 청사진 위에 발자국을 찍고는 말하죠. ‘이봐 진짜 이럴 거야? 거기까지 가면 난 못 도와준다?’라고 말이에요. 그럼 항상 저는 뒤에 훌린 듯이 ‘알았어, 대신 작품이 망하면 네 책임이야.’ 하고는 기껏 멋지게 지어놓은 청사진을 슬쩍 변경하곤 해요. 제가 아직 캐릭터들을 다루기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요. SF의 장르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해요. 무리수까지 세상을 끌고 나가서는 과학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거죠. ‘이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도와줘.’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과학이 투덜거릴 수도 있겠죠. ‘야, 거기까지 가면 내가 못 도와줘. 작작해!’라고 말이에요.

청소년부문 대상 **신사씨남정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로 대회에 출전한 “신사씨남정기”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총 연출(흔히들 ‘감독’이라고 하죠.)을 맡은 홍성현입니다. 대회 참가 결정부터 팀원을 모으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에 촬영, 심지어는 연기까지 온갖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소규모 단편영화가 다 그렇죠 뭐.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평소에도 공모전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SF관련 대회라니! 사실 전에도 과학 관련 대회는 많이 봤지만, SF 관련 대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수상자분이 쓰신 작품에 대해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사씨남정기”는 단편영화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고전소설을 배경을 미래로 바꾸어 각색한 내용입니다. 2분짜리 단편이라 사실 소설에서 따온 것은 인물 구성과 대강의 주제의식 정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쓰인 고전소설입니다. 행복하게 살았지만 후사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본 부인 외에 첩을 들이면서 생기는 갈등과 그 해소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그런 별 인기 없는 옛 소설 같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요즘의 막장드라마(?)가 생각날 정도로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다만 오늘 날의 독자들에게 소설의 기반인 ‘처첩제’의 폐단이 공감하고 호응하기 힘든 주제였는지 현재 그 리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지요. 우리 팀은 지금은 사라진 ‘처첩제도’가 미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인간 연인과 인공지능 연인 사이의 갈등)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본 단편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직 한국에선 SF가 그다지 인기 있는 주류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전국 각지에서 온 전문가 분들과 SF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SF 팬으로서 어쩌면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원래는 영화의 길이가 훨씬 길었습니다. 앞부분에 배경 설명도 들어가야 했고 중간 중간에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2분이라는 시간제한 탓에 온전한 버전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2분 안에 주제를 담아내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시간 제한을 조금만 더 늘려주셨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SF 단편영화가 이 대회를 통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상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SF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어릴 적부터 SF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 SF영화를 소개하는 시리즈가 있었지요. 엄청 좋아하던 책들이었습니다. SF는 과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거나 상상력의 보고라던가 하는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집 방구석에 앉아서 광활한 우주를 초광속으로 누비거나, 로봇의 반란을 진압하는(혹은 많은 경우엔-진압당하고) 등등 어쩌면 유치하지만 한 편으론 가슴 뛰게 만들어주는 “재미”야말로 SF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SF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스타쉽 트루퍼스」를 꼽고 싶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후에 책을 접했는데, 둘 다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애니메이션 “왕립 우주군”입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독특한 설정, 아폴로 우주선의 발사장면을 연상시키는 발사 시퀀스 등이 정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흔히들 지나가는 말로 ‘한국은 SF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바뀔 때라고 생각해요. 최근엔 SF영화들도 선전하고 있고, 각종 단편소설집들도 출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이런 SF대회도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본 대회와 더불어 한국 SF계에 새로운 힘찬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인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게 되며,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하였다. 1인 미디어는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기반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스미디어의 소비자로서 존재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생산자 겸 소비자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특히 유튜브는 이미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자리잡았고,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를 꼽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직장인들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유튜브로 전업하려고 도전하는 모습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1인 미디어 혁명 시대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딸의 흔적을 검색하다!

서치 (Searching)



목요일 저녁, 딸 마고에게 걸려온 부재중전화 3통. 아빠 데이빗은 그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이 실종됐음을 알게 된다. 경찰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실종된 날 밤 마고가 향하던 곳이 밝혀지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다른 딸 마고의 노트북.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딸의 진실이 펼쳐지는데... 한 가족의 삶과 딸의 실종, 그리고 이를 추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OS 운영체제와 모바일, CCTV 화면으로 구성하여, 21세기의 온라인 세상을 스크린에 완벽하게 구현해낸 <서치>를 만나보자.

정보
아니쉬 차간티 감독. 2018
DVD 발매 예정



유튜브는 왜 항상 이기는가?
유튜브 컬처



13년 전 “누구나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한 유튜브는 현재 그저 비디오를 올리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전 세계의 문화 흐름을 주도하며, 인류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대한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유튜브에 모든 것을 올리고,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하며, 유튜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저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창조적 콘텐츠의 흐름과 예측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팁을 흥미롭게 제공한다.

참고자료
케빈 알로카 지음.
엄성수 옮김.
스타리치북스, 2018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03.4833 A441v한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 플랫폼

유튜브 레볼루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인간의 모든 역사가 집결된 기록 저장소, 유튜브. 매달 15억 명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세계 최대의 비디오 저장소인 유튜브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의 규칙을 재정의하며 오늘날 가장 창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유튜브 레볼루션』은 유튜브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로버트 킨슬이 유튜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낸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업계의 거물,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맨들을 직접 만나 유튜브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튜브만의 전략과 새로운 수익 모델, 유튜브가 바꾼 그리고 바꾸어 갈 미디어의 혁명을 만나볼 수 있다.

소장정보
로버트 킨슬, 마니 페이반 지음.
신술잎 옮김.
더퀘스트, 2018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006.7876 K99s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롤모델 대도서관이 들려주는 역대 연봉 유튜버 이야기

유튜브의 神



최근 조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유튜브 이용 시간이 몇 배나 높게 나왔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데는 먹방, 쿡방, 게임, 뷰티, 키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활약 덕분에, 이들의 놀랄 만한 수입 공개가 더욱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유입을 부르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롤모델인 대도서관은 콘텐츠 기획부터 수익 창출까지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 내가 좋아하는 너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보자.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소장정보
대도서관 지음. 비즈니스북스, 2018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650.1 대225ㅇ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모든 것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는 크리에이터가 무엇이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크리에이터의 미래는 어떨지, 그런 크리에이터 그룹이 모여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건강한 콘텐츠, 좋은 영향력을 지닌 콘텐츠를 생산하며 구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기 관리 또한 엄격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장정보
샌드박스 네트워크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8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006.7 샌228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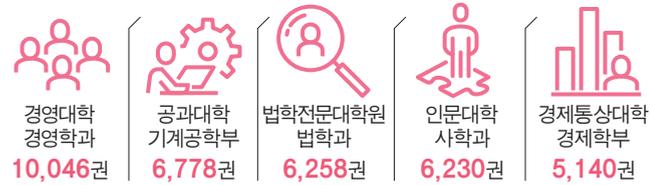


참고
1. 네이버 영화 <https://movie.naver.com>
2.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알아두면 쓸데 많은 도서관 통계

이번 44호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도서관 이용 통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학과별, 학년별, 신분별, 요일별, 시간대별, 월별 대출 통계를 통해 이용자의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과별 대출순위 BEST 5



학년별 대출권수



신분별 대출권수



종합 대출순위 BEST 10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용 현황 (2017년 1월~12월,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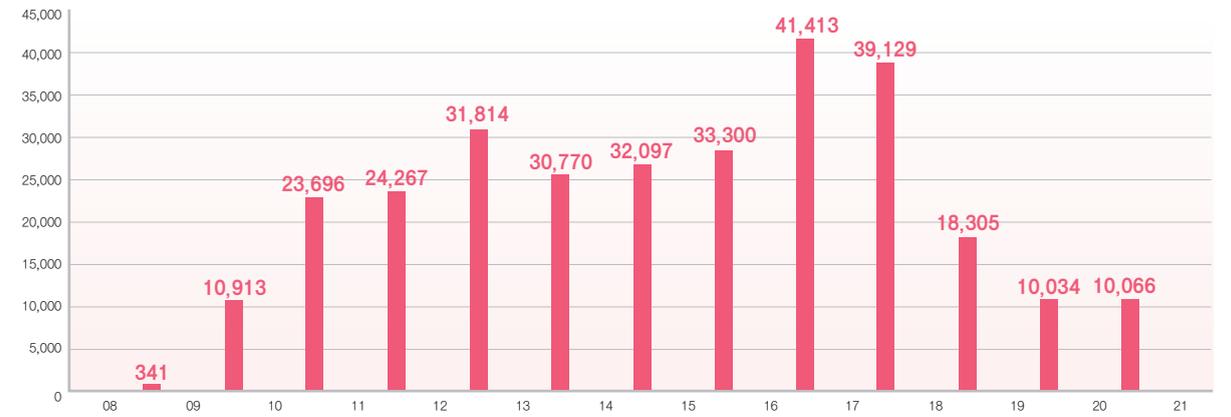
대출반납 건수 | 대출 307,145 권 | 반납 307,180 권

1년간 도서관 이용자 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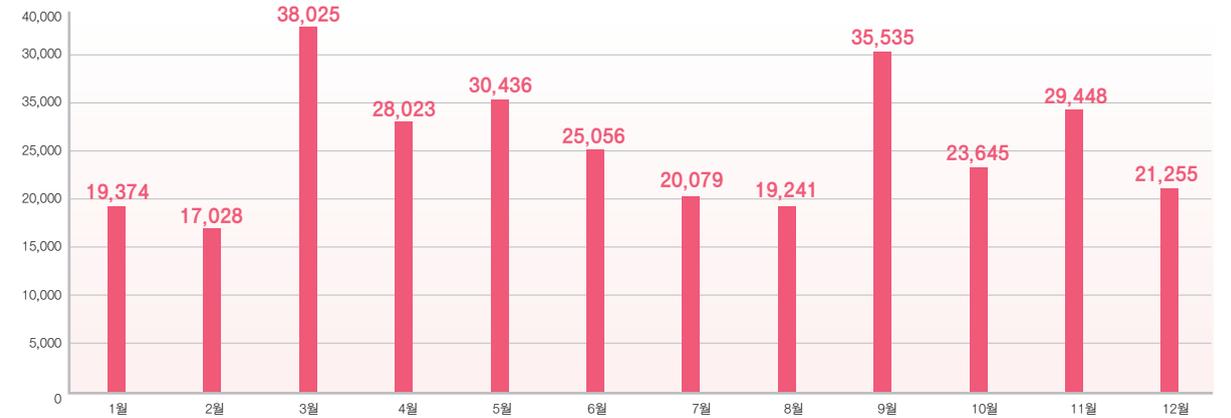
시간별 도서대출 권수

시간별 도서대출 권수통계를 살펴 보면 월요일 오후 4시~6시가 도서대출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도서대출 권수

월별 도서대출 권수통계를 살펴 보면 학기초인 3월에 도서대출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IPS **깜짝 이용 팁**
혼잡한 도서관이 싫은 학우의 경우, 위의 시간대는 피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하자

부산사람들만의 손길이 느껴지는

부산의 지역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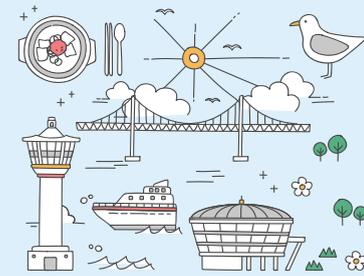
청학서림, 동보서적 등

지금은 사라져버린 부산의 지역 대표 서점들이 있다.

인터넷서점이 등장하고 자본력과 전국 물류망을 가진 대형 체인 서점들의 확장은 지역 서점의 쇠퇴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명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서점들이 있다. 바로 영광도서, 문우당서점, 남포문고이다. 현재 이 서점들은 모두 이전하였거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치열한 대한민국의 서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구성원들도 우리 지역 부산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 대표 서점들을 찾아 그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이들의 변화와 시도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BUSAN

해양서적과 지도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문우당서점

중구 구덕로 38 / T 051-241-5555 / 시간 | 09:30 ~ 21:30 (설·추석 당일 휴무)



1955년 부산 범내골에서 5평 매장을 가진 소형서점으로 시작하여 1973년에 남포동으로 이전했다. 공연 티켓을 큰 서점에서 판매하던 시절, 부산의 서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티켓 예매율을 자랑하는 서점이었다. 남포역 1번 출구 옆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던 곳에 위치했던 문우당서점은 자리를 길 건너편 자갈치 시장 쪽으로 옮겨 영업을 계속해오다 대형 체인 서점들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후 현재는 다시 남포역 1번 출구 근처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이다.

2010년 10월 31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기사를 접한 시민들의 하소연과 격려의 전화가 빗발치자, 규모를 줄여 영업을 계속 하는 쪽으로 선회하여 2011년 지금의 자리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조준형씨가 창업주 김용근 대표의 배려와 도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문우당을 만들었다.

1955년 시작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의 서점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동네 서점 크기의 공간에는 온갖 종류의 지도가 뽐뽐하게 늘어서있고, 지구본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서점에서는 보기 힘든 해사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도서와 자료의 진열에서 지도, 해양도서 전문 서점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자체제작 지도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지도도 있으며, 국내 서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도와 지구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 서점들 중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한 해사관련 전문 서점으로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수험서, 해사법규, 기관일지 등 각종 해양관련 전문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지하철 역사 5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철도 북하우스'의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문우당 서점은 북하우스에서 각종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서점 이외의 도서관련 사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회사인 해양 도서 전문 해광출판사와 문학도서를 펴내는 출판사 스토리팜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 서점 문우당서점의 발걸음은 부산 시민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지역 서점 문우당서점을 계속 응원하게 한다.

가장 오랜 추억을 가진 서면의 역사

영광도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 T 051-816-9500-4 / 시간 | 10:00~21:00 (연중무휴)



1968년 5월 1일 '영광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창업주 김윤환 대표는 경상남도 함안군 출신으로, 1966년 18살 때 부산으로 와서 고향 이름을 딴 '함안서점'에서 취직하며 2년간 일한 후 1968년 서면에 5제곱미터짜리 작은 헌책방을 열었다. 그리고 1975년 신간서점으로서의 전환은 대형서점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영광도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17층짜리 새 건물을 지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개점 5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12월 새로운 건물의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서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책 박물관, 갤러리,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는 공간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기존 건물의 바로 옆 건물로 옮겨 영업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벽면에는 슬라이딩 이중 서가를 비치하고, 좁은 공간에 최대한의 책을 진열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영업 중인 국내 대형 서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광도서는 서점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1993년 '책의 해'를 맞아 작가, 시인들이 평론가, 독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영광독서토론회를 시작한 후 현재 167회까지 진행하였으며, 각종 강좌 수강이 가능한 영광예술문화원도 운영하고 있다. 영광독서 감상문 공모전은 올해 29회를 맞이하였고, 저자와의 대화 등 각종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책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영광도서가 새로운 공간에서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곁에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편안하고 즐거운 남포동 같은 서점

남포문고

중구 중구로 13 / T 051-245-8911 / 시간 | 10:00~22:00 (설·추석 당일 휴무)



남포문고 대표인 김필곤씨는 영광도서에서 19년간 근무하다가 1988년 자갈치역내 지하상가(당시는 코로롱 지하상가, 현 남포지하쇼핑센터)에 문을 열었다. 2000년에 문우당서점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지상으로 진출하였다. 지상 진출 1년 후인 2001년에는 동 건물의 2층 일부를 북카페로 개업하며 명실공히 중대형급 서점으로 거듭났다.

2018년 9월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남포문고는 접근성 면에서는 이전보다 못하지만, 더 넓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대형 서점 체인점 못지않았다. 이전의 남포문고는 서가 사이의 좁은 통로에다 위치적 특성으로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 붐비는 곳이었다면, 지금의 남포문고는 책을 읽거나 살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조용한 서점이었다. 건물의 2, 3층에 위치하여 2층은 계산대와 신간, 베스트셀러, 교양도서가, 3층은 취업, 전공, 전문 서적 위주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3층 창 쪽 공간에는 계산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있어 음료와 함께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부산 지역의 중대형 서점으로는 영광도서와 함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남포문고의 새로운 공간에서 '서점다운 서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참고문헌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하권 / 부산광역시 [편], 2015.
세계서점기행 / 김연호, 2016.

Special Focus

[ACE+]부산대학교
저자와의 만남 - 박시백 화백



도서관은 지난 11월 16일(금) 국제관 대강의실 B101호에서 「(만화)조선왕조실록」으로 유명한 박시백 화백을 초청하여 “격동기 조선의 왕들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박시백 화백의 저서 「(만화)조선왕조실록」은 2017년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각 단과별 도서 대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도서로서, 교내 학부생들에게 자주 대출되는 저자를 초청함으로써 학생과 저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강연 행사에는 저자 사인회와 함께 선착순으로 입장한 150명의 학부생들에게 박시백 화백의 저서 「조선왕조실록의 인물사진」을 나누어 주었으며, 총 156명이 참여하여 박시백 화백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서관 기획전시회 PNUL BEST 5

누군가의 생각이 궁금할 때는 그들의 도서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전공별 학생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할까?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 대출순위 BEST 5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ACE+]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에서는 지난 11월 9일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은 작가, 발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전문가)을 직접 만나 창작과 발명의

배경이 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인생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대학생 스스로 독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하였다. 총 8팀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부산대학교 교수 강신의 사람책을 만난 “강신익과 아이들” 팀이 차지하였다.

우수상으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주 사람책을 만난 “독(讀)-한(韓)” 팀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사람책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유승민 사람책을 만난 “NEWStart”팀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 외 5팀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문의 | 기획홍보팀 051-510-1309

도서관 SNS(서평나눔서비스)
“북토크” 체험단



도서관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 신개념 SNS 서비스 “북토크”의 테스터 36명을 모집하였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을까?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도서 후기를 통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책을 안내해주는 “북토크” 서비스는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도서관형 SNS이다.

선발된 36명의 테스터들은 ‘서평쓰기’, ‘댓글 및 좋아요’로 소통하기, ‘오류 및 개선사항 피드백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토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2018 원복우수기관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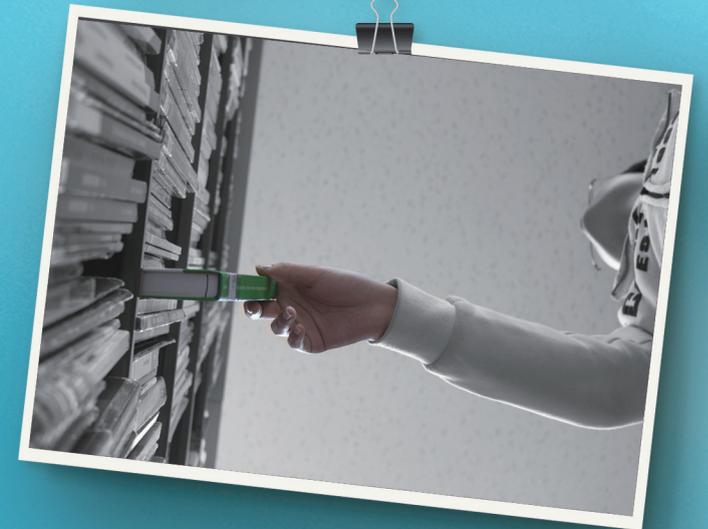
도서관은 지난 11월 23일, “원복원부산운동”에 적극 참여·운영함으로써 2018 원복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원복원부산운동”은 범시민독서생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날 시상식에는 부산대학교를 비롯 우수 기관 11개처, 우수 활동가 6명, 우수 독서토론 동아리 40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등 | 독서다시 동심
박정민(화공생명환경공학부)



2등 | 그림의 떡
김흥현(화학교육과)



2등 | 굿 초이스
고서연(디자인학과)

2018 도서관 사진 공모전
도서관,
나만의 소확행(小確幸)
수상작

총 28점의 도서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수상작 사진전시회(12월 중 예정, 중앙도서관 1층 로비)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 자료조직팀(051-510-1825)